

아름다운 영혼

이 혜 영 (로사)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내가 이 환자를 처음 방문 했을 때 항상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말을 붙일 기회가 없었고 어찌다

눈이 마주치면 가까이 다가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많이 아프지요” 이 정도의 인사만 나눌뿐이었다. 그러나 환자의 그 힘들고 아픈 것 내가 다 알아주고 함께 하고 싶지만 어쩔수 없이 환자 자신만이 질 수 밖에 없는 고통의 십자가 입을 이야기 하면서 마음으로나마 환자의 고통에 함께 하고 싶다고 하면서 언니와 같은 따뜻하고 넉넉함을 환자로 하여금 느끼도록 노력했다. 특히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 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초조한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선생님이 아무런 말씀 없이 나가시면 회진때마다 늘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그러다가 어느날인가 인턴 선생님이 희망이 없다고 직접 환자에게 말을 해서 환자가 막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마음을 굳게 가지고 울지 말라고만 했다. 그러나 나는 환자의 그 서럽고 슬프고 힘든 마음을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면서 그의 등을 어루만지며 울고 싶으면 실컷 울라고 했다. 그리고 그를 가만히 꼭 안아 주었다. 그런 다음날 환자를 방문했을 때 환자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지난번 울라고 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울지말라고 옥박지르고 야단인데 봉사자 만이 울라고 해서 실컷 울었더니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하다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환자와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일교포와 결혼을 한 환자는 일본에서의 시집살이, 시어머니, 시숙, 모든 가족들이 환자를 괴롭혔다

고 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아직도 옛날 그러니까 해방전의 그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진 분으로 문화적 차이 정서적 차이를 극복못해서 꽤 외롭고 힘들어 했던 것 같았다. 일본에서 첫 번째 수술후에도 집에서 많은 일을 했고 민간요법에 의한 약을 썼을 뿐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시댁식구들을 원망했다.

환자가 일본에서 생활을 이야기 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아픈사람 같지않게 열심히 열을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 보면서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도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했냐며 가끔 묻곤해서 어느것 보다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중매 결혼하면 살아가면서 사랑하게 되고 정들고 하는 것인데 사랑해서 결혼했노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니 너무나 괴로웠다고 했다. 결혼할때는 술도 담배도 못한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술도 중독에 가깝도록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워서 결국 자기를 속였다고 많이 분노 했다.

무엇보다 환자는 결혼생활 2년이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여러곳의 산부인과를 다녔지만 아이가 없어 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결국 이번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자기가 불임 환자라고 고백해서 너무나 놀라고 배신감에 모든정신이 다 떨어졌다고 했다. 차라리 끝까지 비밀을 지켰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환자는 안타까워 했다. 병실에서도 남편은 잘해 주지도 않고 술마시고 들어오면 소리지르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불안해서 견딜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어느날인가 내가 병실을 방문했을 때 환자의 남편이 복도 의자에 누워있고 환자는 울면

서 누워 있었다. 환자는 소변을 보고 싶어도 물이 먹고 싶어도 꼭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하니 이 아픔중에서도 남편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한다며 막 흐느껴 울었다. 치료비는 오빠가 대고 남편은 병간호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며 그 큰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나는 말없이 지켜보면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하다가 얘기했다. 아무리 남편이 못 마땅하고 불만스러워도 그 남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용서와 화해를 시킬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나는 남편과의 화해가 첫 번째 일인 것 같아 우선 남편을 만나 이야기 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에 친구가 있나, 친척이 있나, 말이 잘 통하나, 많이 힘들지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줘요, 조금만 참아줘요, 하면서 그를 위로 했다. 또 환자는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우니 될 수 있으면 환자의 비위를 맞추어주고 참아주고 잘 해주라며 그의 두손을 꼭 잡고 이야기 할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남편이 인간적으로 꽤 불쌍하게 생각되어 환자에게는 흰족을 쏘어다 주고 남편에게는 김밥을 싸다주고 또 환자의 보호자 역할도 하면서 그 남편을 마음놓고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들과 저는 더 가깝게 되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다. 환자가 일본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지금의 자기 상황보다 몇배 더 힘들었음을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그때의 자기 아내의 마음을 지금은 좀 알 것 같다고 했고 환자에게는 남편에게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라고 했다. 한번도 그런말을 안했다고 하길래 사람의 마음은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니 “고맙다” “미안하



다”는 말을 하면 남편이 꼭 좋아 할테니 꼭 하라고 했다. 환자도 꼭 하겠다고 약속했다.

몇일후 방문 했을 때 정말 부부가 다 행복해 보였다. 남편에게 시킨대로 했다며 요즘에는 얼굴도 닦아주고 너무나 잘해 준다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환자의 남편은 나에게 “누나” 라는 호칭을 쓰기 시작했고 환자는 봉사자가 남편에게 가르쳐 주어서 자기에게 잘해 준다며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병원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해야 돼”하고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셨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붙잡고 우는사이 서로의 나쁜 감정은 다 씻겨지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증오도 다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평화가 있음을 보았다.

2월 28일 환자가 운명할 것 같다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환자는 막 운명한 후 였다. 의료진이 처치하는 것도 외주는데 남편이 예쁘게 해 달라면서 “이봐 아프다고 말해, 아프다고 말해봐”하면서 울었다. 또 “날 사랑하지, 날 사랑하지”하면서 어쩔줄 몰라하는 환자의 남편을 말 없이 잡고 있는데 밖에는 겨울비인지 봄비인지가 많이도 내렸다.

입관날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잘해 주었고 환자의 남편은 죽은 아내를 잡고 너무나 슬퍼 많이 울었다. 관속의 환자는 꼭 아름다웠다. 그의 영혼도 그렇게 아름다우리라고 바라고 믿으며 하느님 앞에 바쳐진 환자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또 한번 반성해 본다.